



리아호나 2010

# 지역 소식



## 헌혈, 사랑을 나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리스도가 선포한 새로운 계명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혁명과도 다름없었다. 엄격한 잣대와 형벌이 강조됐던 모세의 율법에 비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율법은 사랑과 자비, 그리고 관용을 강조했다. 그리스도는 병자를 축복하고 가난한 이를 돕는 등의 여러 가지 행동으로 이 새로운 율법을 증명해 보였다. 그 후 그리스도가 설교한 사랑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 복음을 따르는 성도들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나타냈다. 후기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한국 교회에서도 휠체어와 생필품 전달 등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이 진행된다. 헌혈도 전국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큰 연례행사이다.

2010년 6월, 한국 공보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헌혈 행사'가 열린다. 6월 한 달 동안 계속 될 이번 행사는 헌혈이 가능한 전국의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의 헌혈 행사가 스테이크 단위로 이루어졌다면 이번에는 각 와드와 지부 별로 진행된다. 스테이크에서 헌혈 차량을 불러서 회원들을 모두 모아야 하는 수고와 번거로움을 줄이고, 회원들의 높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같은 방법이



강구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와드 회원들끼리 모여서 헌혈의 집 등을 방문해 헌혈을 할 수 있고, 그마저도 어려운 회원들은 개인적으로 헌혈을 하고 헌혈증서를 교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모은 헌혈증서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이름으로 대한적십자사에 기증된다.

사랑의 실천이자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위라 불리는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또한 세계 각국은 혈액의 상업적 유통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기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만이 혈액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헌혈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사람들을 망설이게 한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헌혈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세 가지, '질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 '빈혈이 생긴다', '건강이 나빠진다'에 대해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연간 약 300만 명이 헌혈을 하지만 그 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중이다. 한국 공보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현실을 알고, 후기 성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줄 것을 권유한다. 이번 '사랑의 헌혈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감독단이나 지부 회장단, 그리고 스테이크 복지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 헌혈 전 유의사항

- 과음 및 과로는 피해주시고.
- 최소 4시간 이상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 장시간의 공복은 안 됩니다.
- 침을 맞았을 때는 3일 후에 헌혈이 가능합니다.
- 독감에 걸렸다가 회복 되었을 때는 24시간 후, B형 간염 예방 주사를 맞았을 때는 3주 후 가능합니다.
- 스케일링 등의 치과 치료는 3일 후, 임플란트는 한 달 후 가능합니다.
-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는 한 달 후 헌혈이 가능합니다.
- 진통제나 소화제를 일시적으로 복용했을 때는 하루 후에 가능하고, 아스피린은 3일 후에 가능합니다.
- 병원에서 처방한 감기약을 복용했거나 주사를 맞았을 때는 일주일 후에, 약국 판매용 종합 감기약을 복용했을 때는 하루 뒤에 헌혈이 가능합니다.



## 4. 발전해 나가는 교회

신앙의 발자취를 찾아서 이번 호에는 교회 건물 구입과 재단 설립, 그리고 경전 및 출판물 번역 등 이 땅에 뿌리 내린 교회가 서서히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 교회 건물 구입과 재단 설립

1956년 9월 16일에는 최초의 한국 지방부 대회가 서울고등학교에서 열렸다. 신권 모임에는 30명, 일반 총회에는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호직 당시 지방부 회장이 사회를 했고, 앤드리스 회장이 감리를 했다.

지방부 대회 다음 날인 9월 17일에는 김호직 형제와 파웰 장로, 카 장로, 그리고 앤드리스 회장이 교회 건물을 물색하러 갔다. 회원들이 함께 모여 집회를 하고 선교사들의 숙소로 사용할 만한 건물이 필요했다. 네 사람은 주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 기도했고 하루 종일 가을 햇볕이 내리쬐는 서울 거리를 누볐다. 그렇게 해서 서울 유락동에 있던 한 건물을 찾아냈다. 콘크리트로 지어진 아담한 건물로, 네 사람 모두의 마음에 들었고 주님 역시도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사실을 네 사람은 기도로 알게 되었다. 9월 26일, 제일회장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유락동 건물을 계약하게 되었다. 교회에서 구입한 한국 최초의 건물이었다. 1957년 7월에는 현재까지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건물인 삼청동 건물을 구입했다. 넓고 깨끗한 부지와 한국의 고전미가 살아있는 건축물은 신앙의 중심지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두 개의 건물을 구입하는 사이 한국 교회에서는 또 한 번의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재단법인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것이다. 교회가 한국 땅에서 자리를 잡는데 김호직 형제의 든든한 제도적 지원이 큰 몫을 차지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게일 이 카 전 선교부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초창기의 그 시절들을 되돌아보면, 김호직 박사의 직위와 영향력이 없었다면 한국인 성도들이 누렸던 성공은 훨씬 뒤로 미루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한국 땅에 교회 설립을 승인한 맥케이 회장님은 한국에서의 교회의 법적 지위와 장래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폴 시 앤드리스 북극동 선교부 회장에게 저로 하여금 최대한 빨리 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법인 설립을 하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 저는 저의 지방부 회장인 김 박사께 교회 회장님의 편지를 보여 드리고 그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대변에 ‘우린 해낼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sup>1</sup>

한국 교회가 재단법인의 지위를 얻는 과정은 한 편의 기적과 같은 드라마였다. 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대한 자선단체 협회’에서 설립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당시의 교회 현황으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김호직 형제를 중심으로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승인을 얻을 수 있었다. 정작 큰 문제는 설립 승인을 받는 일이었다. 승인을 위해서는 서울시 교육 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김호직 형제가 위원이었으므로 승인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듯했다. 그러나 위원들 중에는 다른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다수 있었고, 이번에도 역시 약한 교세가 걸림돌이 되었다. 결국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정 보증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유일한 방법은 선교사들이 일주일 안에 자료를 보강하여 제출하는 것이었다. 그 짧은 시간 내에 새로운 재정 보증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지만 선교사들은 금식과 기도를 했고, 카 장로가 후기 성도 군인들이 전해 준 대회 보고서에서 교회가 브리검 영 대학교와 유타, 아이다호, 멕시코, 하와이 등에 있는 학교와 병원에 수백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재무 보고서를 찾아냈다. 기도의 응답이었다. 선교사들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 교육 위원회 회의에서 직접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한국에서 교회의 재산은 보잘 것 없지만 한국에서 법적인 지위만 얻게 된다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향후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교회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게 의견의 요지였다. 결국 신청서는 통과됐다. 김호직 형제는 회의가 있었던 날 밤 늦게 유락동 선교사 숙소를 찾아서 큰 소리로 외쳤다. “통과됐어! 우리가 해 냈다고!” 1957년 4월 11일의 일이었다.

**교회 출판물 번역**

1957년 3월, 한국 관리 본부의 전신이 되는 ‘한국 지방부 번역실’이 창설되었다. 장세천 형제와 정대판 형제, 그리고 이정순 자매가 주축이 되어 여러 교회 자료들과 출판물을 번역했다. 그 전까지 한국 교회에는 한국어로 된 자료가 하나도 없었다. 찬송도 영어로 부르고 성찬 축복도 영어로 해야 했다. 정대판 형제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한다.

“이영범(내 주를 가까이), 최명희(주 예수의 군병들), 홍병식 등 여러 명이 찬송가를 번역하여 정영주, 김광호 형제가 철필판에 악보를 그리고 6곡을 프린트하여 집회에서 사용했다. 악절과 가사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으나 그런대로 의미를 살려 부르는 기쁨은 어려운 영어로 부를 때보다 훨씬 더 영감적이었다.”<sup>2</sup>

한국 지방부 번역실이 창설되기 전인 1956년에는 뜻있는 회원들의 수고로 ‘크리스마스 캐롤집’이 탄생했다. 뒤를 이어 여러 곡의 찬송가도 번역 인쇄되어 나왔다. 대부분을 홍병식 형제가 번역했고, 정대판 형제가 등사판으로 찍어낸 후 제본했다. 총 백 권을 제작해서 오십 권은 부산으로 보냈다.

그리고 1957년 9월 5일, 드디어 한국어로 된 최초의 전단지들이 인쇄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선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총 일곱 개, 즉 ‘조셉 스미스의 개인적인 경험’, ‘구원의 계획’, ‘편한 토론’, ‘모든 이 중 가장 위대한 자’, ‘계시의 하나님’, ‘주님의 재림’, ‘몰몬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유’가 그것들이었다. 교회의 출판물과 자료들이 번역되어 나오면서 회원들의 복음 지식과 간증이 보다 더 풍부해지기 시작했다. ■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주

1. “내 양을 먹이라”, 100~101쪽.
2. “북극동 지방부 한국 선교부”, 성도의 빛, 1967년 7월호, 20~21쪽.



왼쪽 맨 위: 한국 교회에서 최초로 구입한 유락동 건물. 1956년 9월 26일에 정식으로 계약한 이 건물은 초기 회원들에게 신앙의 보금자리 역할을 했다.

왼쪽 가운데와 아래: 삼청동 건물은 고전미가 살아있는 전통 한국식 건물이었다. 집회소와 선교사 숙소로 사용된 이 건물은 1957년 7월에 계약했으며 현재까지 교회가 소유하고 있다.

오른쪽 위: 유락동 교회에서 함께한 청년들.

오른쪽 아래: 유락동에서 교회 모임을 마친 후.





##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합 스테이크 특별 청소년 대회(이하 SMYC)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뜨거운 여름을 위해 땅속에서 7년을 보내는 매미처럼 SMYC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SMYC는 현재 대부분의 준비가 끝난 상태다. 하지만 보다 나은 대회를 위해 점검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몇 번씩 되풀이하고 있다. SMYC는 다른 나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대회를 준비하는 회원들에게 뜨거운 간증을 불러일으킨다. 준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회원들은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희생하면서도 시종일관 즐거운 표정을 감추지 않는다.

### 대회를 준비하는 사람들

SMYC 준비는 크게 두 개의 조직이 이끌고 있다. 대회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모든 사안들, 홍보, 통계, 재정, 시설, 의료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준비위원회' 이고 대회 기간 동안 청소년들을 이끌고 활동을 진행하는 조직이 '운영위원회' 이다.

이 두 조직은 서로 협력 하는 가운데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준비위원회에 속한 회원들은 대회의 원활한 시작과



### SMYC 참가자 지침서가 제작됐다.

진행을 위해 장소 섭외부터 시설물의 설치, 그리고 홍보 자료 제작과 예산 배분까지 모든 부분을 세세하게 준비한다. 전국에서 천 명 이상의 청소년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유래가 없는 모임인 만큼 준비 과정 또한 복잡하고 힘든 것은 당연한 사실. 하지만 봉사를 통해 이 대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준비위원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모든 일을 수행한다. 그들이 봉사하는 이유는 청소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SMYC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리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준비위원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대부분 청년 독신 성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공부 중이다. SMYC 기간 내내 청소년들과 함께 하며 실질적으로 대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운영위원들. 대회의 성패가 그들에게 달려 있다고 할 만큼 역할이 크기에 그들의 어깨는 무겁다. 모여서 훈련 모임을 갖고, 매주 화상 회의를 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지난 5월

22일과 23일에는 전국에서 부름 받은 백여 명의 '조 고문' 들이 1박 2일 동안 함께 모여 훈련을 받았다. 운영위원들이 직접 조 고문들을 가르치고 인도했다. 운영위원으로 봉사하는 이자영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청소년 시기에 교회 회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청소년들을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는 SMYC의 주제는 비단 청소년들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들은 이 영감 받은 대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권능을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운영위원들은 그 자신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면서 SMYC를



SMYC 운영 고문들

준비해나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대회가 훌륭히 치러지리라는 믿음과 주님에 대한 신앙이 커져간다. 역시 운영위원으로 봉사 중인 박지형 형제는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대회를 통해서 청소년들 개개인의 간증이 더욱 더 커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청소년들이 매일 경전을 읽고 성신의 인도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SMYC를 준비한다면, 이 대회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가장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느낄 것입니다.”

#### 대회를 준비하는 청소년들

6월 현재 SMYC를 향한 청소년들의 관심은 최고조에 달했다. 어떤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몇 명이나 참석하고 누구와 조를 이루게 되는지 청소년들의 궁금증은 끝이 없다. 그런 가운데 수많은 청소년들이 참석 의사를 밝혔고, 이 대회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 현실 상 방학 중의 보충 수업과 학원 수업을 일주일 동안 빠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 하지만 청소년들과 그 부모님들은 학교와 학원에 양해를 구하고 일정을 미리 조정하면서 SMYC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그렇게 해서 어느덧 수많은 청소년이 모였다. 청소년들은 지난 5월 21일에 열렸던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대축제’에서 표준에 맞게 만들어진 몇몇 노래와 춤, 그리고 대회 주제가를 배웠고 표준에 대해서도 훈련을 받았다. SMYC에서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강한 표준을 요구하는 만큼 그것을 지키려는 청소년들의 노력 또한 배가되고 있다.

#### 그리고 한 통의 편지

SMYC는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청소년들을 떠나 한국 교회 전체의 관심사다. 청소년들을 강화하는 것이 앞으로의 한국 교회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모두 알기 때문이다.

운영위원장으로 봉사하면서 늘 SMYC를 생각하고 또한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정대걸 형제는 자신 역시도 청소년의 부모이다. 그가 청소년들을 위한 한 통의 편지를 보내왔다. 그 일부를 소개한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 제 생각에 이번 SMYC의 개념은 여러분에게 각자가 자신의 왕국에서 왕과 왕후가 될 운명을 지니고 이 땅에 와 있음을 깨닫게 해 주고, 특별히 선정된 고문들의 도움을 통해 여러분 수준에 걸 맞는 품위와 최상의 예절, 그리고 높은 수준의 법도와 하늘 아버지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현실을 살아가는 바른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 본부 청년 회장이신 일레인 에스 돌튼 자매님은 2009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성한 정체성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의 복장, 언어, 우선순위, 중점 사항과 같은 모든 것이 달라야 합니다.’ 또한 이번

2010년에 열렸던 청년 총회에서는 프랑스 왕 루이 16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증거 하셨습니다. ‘이 왕자처럼 여러분 모두는 고귀한 장자 명분과 신성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문자 그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고귀한 딸(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왕후(왕)가 될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입학 앞두고 있던 중, 중학교 시절 마지막 긴 겨울 방학 동안에 당시 막 서울 제8와드에 다니기 시작한 형의 권유로 선교사와의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두 분의 외국인 선교사가 저의 집을 찾아와 진지하게 가르쳐 준 모든 것이 신기하였지만, 어린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과 그 뒤 그에게 찾아온 변화의 이야기가 특히 감명 깊었고, 그러한 계시된 진리 안에서 점차 확립된 회복된 복음이 가르쳐 준 삶의 방식이 얼마나 친근하면서도 신선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꿈꿔 온 바로 그 교회를 찾았다는 그때의 느낌이 지금까지 저를 변화시켜왔고, 복음대로 살고자 함으로써 보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30여 년 전의 저를 다시 만나는 기분으로, 여러분을 맞을 준비에 가슴 설레고 있습니다. 모쪼록 기도하시는 가운데 시간을 잘 조절하셔서, 여러분께 주어질 놀라운 이야기를 와서 직접 들으시고 배우시고 익혀,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중3이든 고3이든, 정말로 즐겁고 놀라운 체험을 하시게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준비 기간 동안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

## 복지의 <sup>3</sup> 기본원리 ABC

# 궁핍한 자를 돌봄

*Caring for the need*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모범으로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또는 “난 너무 바빠서 다른 사람을 걱정할 여유가 없어요.”라고 말합니다. 자기변명으로 “난 그동안 많은 도움을 베풀어 왔어. 그러니 이젠 편히 쉬 차례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바쁘고 힘든 인생의 시기에 “얼마나 더? 언제 끝나는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신권 지도자들은 그 대답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삶의 이유와 시간과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단지 구주께서 우리가 “약한 자를 [돕고,] 친지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해[길]”(교리와 성약 81:5) 원하심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 영적인 복지(영적으로 궁핍한 자를 돌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영적으로 강하게 되라는 가르침과 도전을 계속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니고, 복음 의식을 받으며, 개인 및 가족과 함께 매일 기도하며 경전을 읽고, 교회 모임에 참석하며, 계명에



순종하라는 등의 권유를 받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목표들을 받아들이고 매일 그렇게 행하여 축복을 받는 수백만의 교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닌즉, 너희는 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구하고 서로 가르쳐야 한다는”(교리와 성약 88:118) 말씀을 듣습니다.

4월 연차 대회를 시작하면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교회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며 이 점을 상기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배우고, 영감을 얻기 위해 이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과제, 실망감과

상실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토마스 에스 몬슨, “연차 대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설령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우리보다 적더라도 그들의 필요가 더 큼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말과 행위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영적으로 궁핍한 자를 돌보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 최대한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 거기서부터는 성신이 일을 이어 맡아 주실 것입니다.

### 현세적인 복지(현세적으로 궁핍한 자를 돌봄)

궁핍한 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각자에게 주어진 명령임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는 감독에게만 국한되는 일이 아닙니다. 감독의 역할은 부지런히 돌보는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 와드 지도자들의 도움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찾아내고, 신권과 보조 조직에 임무를 위임하여 궁핍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원리에 따라 적절한 때 금식 헌금을 사용하는 것 역시 감독의 역할입니다. 베냐민 왕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매일 너희의 죄 사함을 간직하여,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너희가 각 사람이 가진 바에 따라 너희 재물에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기를 바라노니, 이를테면 주린 자를 먹이며, 벗은 자를 입히며, 병든 자를 찾아보고 구제하되, 영적으로나 현세적으로 그들의 필요에 따라 행함 같은 것이라.”(모사이사서 4:26) 여기서 우리가 가진 바에 따라 주라는 말에 주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자신이나 가족을 곤경에 처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영원한 복지(서로의 영원한 복지를 돌봄)

지상에서의 삶은 영원에 비교하면 그저 한순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전세를 기억할 수 없으며 왜 이곳에 왔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에, 종종 현재와 특히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연연하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역사상 최고의 시기에, 그들은 마음이 편협한 상태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주전 83년과 주후 400년쯤에 사람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자신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영혼의 복리에 관하여 서로 말하기 위해 자주 함께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엘마서 6:6 그리고 모로나이사 6:5 참조) 이 일로 지상 생활은 마치 하늘에서의 삶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길을 잃어버린 자신의 아들을 찾았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개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가르치셨습니다. 회장은 말씀을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왕국에서 구조와 구조자의 본을 세우셨습니다.”(헨리 비 아이어링,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우리 각자는 주님의 왕국에서 구조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도록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이를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주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손을 내미시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위로하고 치유하고 축복하며 사랑하기 위해 손을 뻗으시는 모습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깎아내리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겸손하고 온유한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에서 걷고 보살피시며 희망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필멸의 삶 동안 하신 일이며,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살아 계시다면 하실 일입니다. 이는 또한 그분의 제자이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너희가 곧 내 손이니라”,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

## 한국 성도의 소리

### “주님으로부터 오는 부름”



지난 4월,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게리 이 스티븐슨 회장님의 감리로 스테이크 대회가 열렸다. 당시 스테이크 회장이었던 나는 그 대회에서 새로운 회장단이 조직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스테이크 회원들에게 새롭게 부름을 받는 스테이크 회장단과 그 가족들이 주님의 성스러운 부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9년 전, 나도 똑같은 과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새로운 회장단이 조직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한 스티븐슨 회장님과 스테이크 신권 지도자와의 접견은 누구를 찾아서 부름을 주어야 하는지를 주님께 묻는 기도로 시작되었다. 스티븐슨 회장님께서 모든 계시 중에서 가장 빨리 주어지는 계시가 스테이크 회장을 성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나는 주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종을 부르시고 계시를 주시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뜨거운 간증을 느꼈다.

오랜 접견 끝에 박인수 형제가 새로운 스테이크 회장이 되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내 마음은 따뜻하고 편안해졌다. 나는 그가 합당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제1보좌로 부름 받은 오우현 형제, 제2보좌로 부름 받은 류석호 형제도 마찬가지였다. 스테이크의 모든 회원들은 새로 바뀐 회장단을 한 마음으로 지지했다. 동시에 올라가는 그 손들을 보면서, 부름이야말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것을 잘 수행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

길영권 형제(인천 스테이크 전 회장)

함께 나누는 경전 구절

잠언 3장 1, 5~6절

“내 아들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 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세**미나리 시간에 잠언을 배울 때였다. 내 친구가 세미나리 교사님께 이렇게 질문했다. “자매님 근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믿어요? 만약에 실제로 예수님과 동시에 살았다라면 의심치 않고 이분을 믿었

을 건데 솔직히 조금은 의문이 들어요.” 나 역시 같은 생각에 “맞아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라며 당돌한 질문을 했다. 그 질문을 시작으로 세미나리 수업은 질의응답 시간으로 바뀌게 되었다. 세미나리 교사님은 경전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분의 존재를 알게 됐고 인정하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다. 덧붙여 의심 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인정하는 것이 본인 자신이 가진 장점이라고 말했다. 그야말로 잠언 3장 6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자세였다. 세미나리 교사님의 대답을 듣고 나는 ‘의심 없이 받아들임’의 값어치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잠언 3장의 말씀이 내 가슴 속으로 박혀와 얹었던 신앙이 조금은 깊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나는 당당히 말할 수 있다. 주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살아 계신다고. ■

오유민 자매(부산 스테이크)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강릉 지방부

태백 지부 지부 회장: Peterson, Jared Bryce 장로(전임: 고현직)

대구 스테이크

구미 와드 감독: 윤성욱(전임: 정동욱)

서울 스테이크

서대문 와드 감독: 남복출(전임: 박승호)

서울 북 스테이크

신촌 와드 감독: 이상곤(전임: 안경찬)

수원 스테이크

신갈 와드 감독: 조강제(전임: 구본철)

인천 스테이크

인천 스테이크 회장: 박인수(전임: 길영권)

스테이크 회장단 제1보좌: 오우현(전임: 박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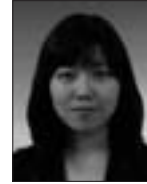
스테이크 회장단 제2보좌: 류석호(전임: 오우현)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국내 12명/해외 4명



구예경 자매  
수원 스테이크  
신갈 와드  
부산 선교부



이주미 자매  
서울 강서 스테이크  
부천 와드  
워싱턴 시애틀  
선교부



김가빈 자매  
수원 스테이크  
신풍 와드  
워싱턴 시애틀  
선교부



이태선 장로  
서울 강서 스테이크  
화곡 와드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선교부



김유진 장로  
서울 남 스테이크  
동작 와드  
부산 선교부



이택준 장로  
청주 스테이크  
흥덕 와드  
서울 선교부



김현명 장로  
광주 스테이크  
풍향 와드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선교부



조아라 자매  
서울 북 스테이크  
금촌 와드  
대전 선교부



길의정 자매  
인천 스테이크  
부평 와드  
서울 선교부



최지선 자매  
서울 동 스테이크  
의정부 와드  
대전 선교부



박성규 장로  
대전 스테이크  
여수 지부  
서울 선교부



하예지 자매  
대전 스테이크  
둔산 와드  
서울 선교부



이경란 자매  
서울 영동 스테이크  
수지 와드  
대전 선교부



허혜진 자매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  
부산 선교부



이세현 자매  
서울 동 스테이크  
길음 와드  
부산 선교부



윤진아 자매  
서울 강서 스테이크  
목동 와드  
부산 선교부